



이슈 점검

전기전자

2021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결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118%나 고성장했다. CO₂ 규제 준수,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을 배경으로 한다. 중국이 주도한 가운데, 미국도 고성장세로 전환했다.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13%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19년의 2배 수준이며, 향후 미국 시장이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전기차 시장은 880만대로 전망된다.

>>> 차량용 반도체 이슈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118% 고성장

2021년 글로벌 전기차(승용차 기준, PHEV 포함) 시장은 118% 성장한 635만대로 집계됐다. 20년 성장을 42%를 크게 상회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OEM들이 CO₂ 규제를 준수하고, Tesla에 맞서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을 하며 전기차를 우선 생산한 결과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20년 3.7%에서 21년 7.8%로 상승했고, 최근 12월은 11.5%에 달했다.

지역별 성장률은 중국 176%, 미국 101%, 유럽 70%로서 중국이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미국이 고성장세로 전환한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은 내수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의 22년 30% 삭감 및 23년 소멸을 앞두고 선행 수요가 집중됐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 변화가 뚜렷하다.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30년 신차 중 ZEV 비중을 50%로 높여 잡았으며, 26년 이후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규제를 신설해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연간 전기차 침투율이 13.2%였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40% 성장한 880만대로 전망된다.

브랜드별 전기차 점유율은 Tesla 16.5%, Volkswagen 10.9%, SAIC 10.2%, BYD 9.4%, 현대기아차 5.2%, Stellantis 5.0%, BMW 4.7% 순이었다.

모델별 Best Seller는 Tesla Model 3가 56만대, Model Y가 44만대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 Wuling HongGuang Mini EV 43만대, BYD Qin Plus DM-i 11만대, 기아 Niro 11만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

>>>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30%, 미국이 기회

전기차 배터리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한국 3사의 점유율은 20년 34.7%에서 21년 30.4%로 하락했지만, 19년의 2배 수준이다. 21년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CATL과 BYD가 약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Tesla Model Y(중국산), VW ID.4, Ford Mustang Mach-E 등의 판매 호조로 19.6%의 점유율과 함께 2위를 지켰고, SK온은 현대기아차의 IONIQ 5, Niro EV, EV6 등을 타고 5위에 올랐으며, 삼성SDI는 Fiat 500, Jeep Wrangler PHEV, BMW iX 등과 함께 3.8%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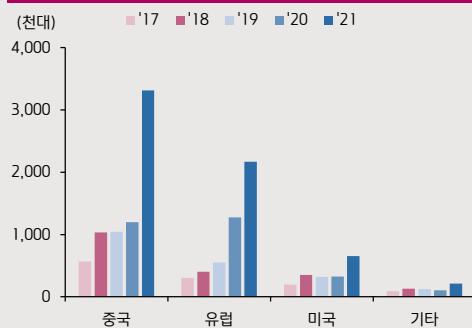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RA 김소정

02) 3787-4855 sojung.kim@kiwoom.com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변화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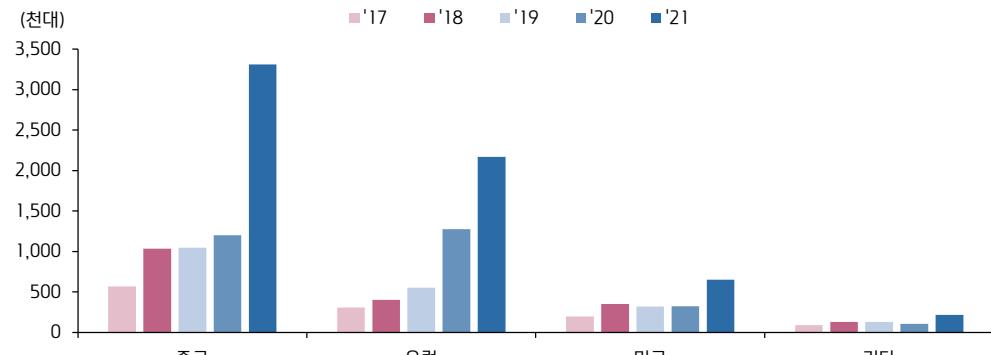
유럽 전기차 시장 동향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럽 시장 상황을 부연해서 서술한다. 유럽은 강력한 CO₂ 규제(95g/km)를 실행하고 있고, 30년 신차 CO₂ 배출량 감축 비율 목표를 55%로 상향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전기차 대당 평균 6,000유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노르웨이는 25년,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30년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PHEV의 보급이 활발하고, 보조금을 포함한 PHEV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VW e-Up!, Fiat 500e, Renault Twingo 등 경형 전기차 판매가 호조였는데, 초소형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데다가 보조금의 역진적 구조에 따른 혜택을 누렸다.

중국은 초소형 모델인 Wuling HongGuang Mini EV의 판매량 급증에 따른 착시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용량이 9.2~13.8kWh에 불과하다. Wuling HongGuang Mini EV의 중국 내 점유율은 1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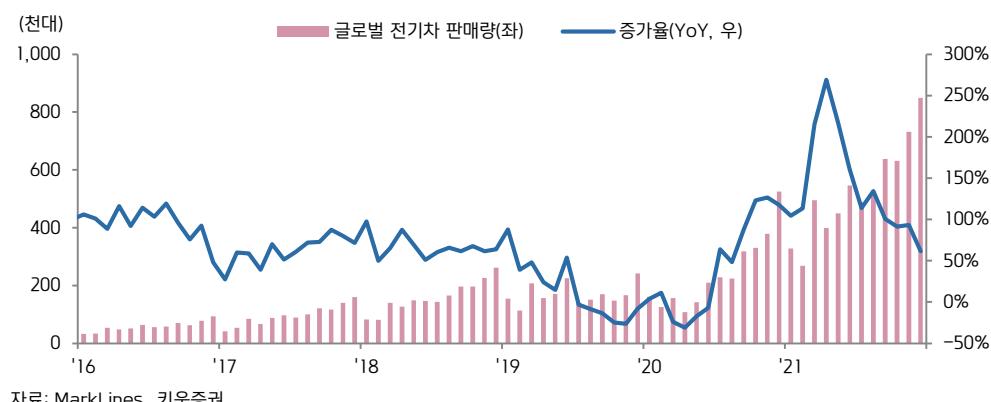
21년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유럽 13.2%, 중국 13.0%, 미국 4.4%로서 유럽과 중국은 패러다임 변화가 현실화됐다.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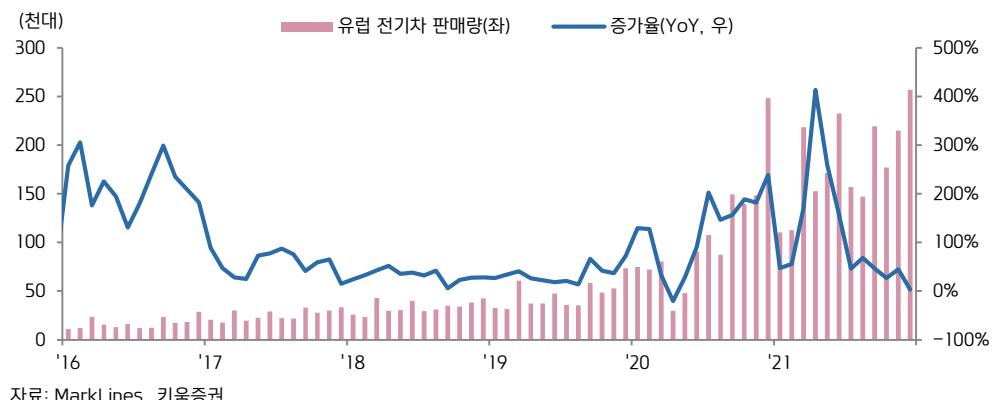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키움증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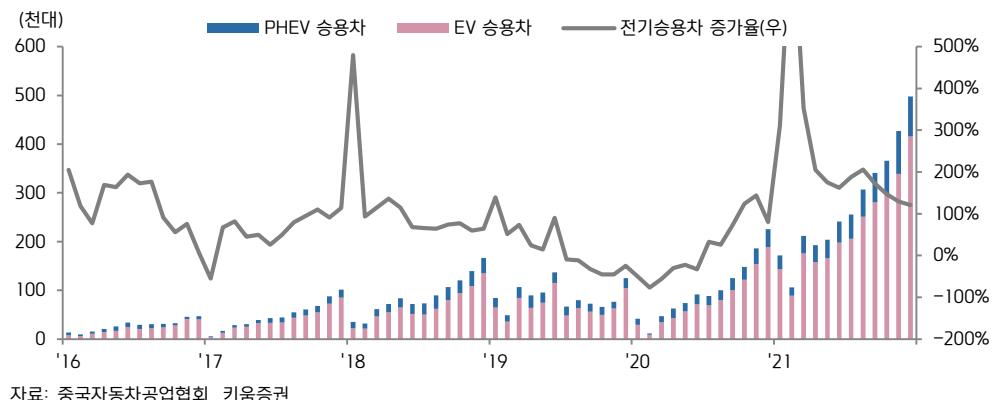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키움증권

유럽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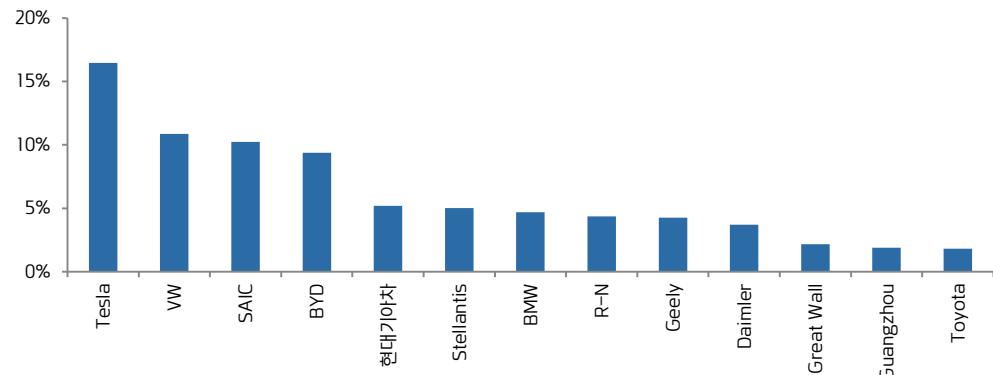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키움증권

중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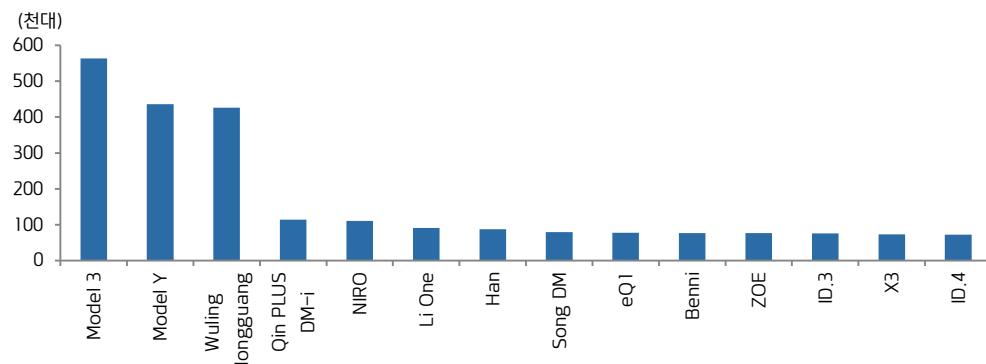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키움증권

2021년 브랜드별 전기차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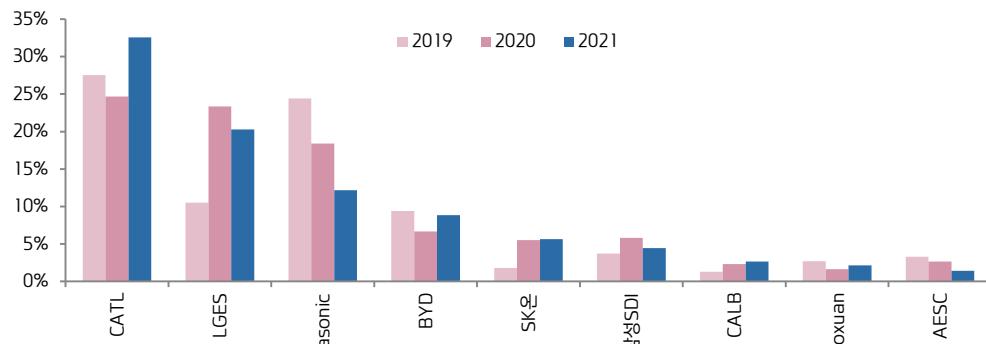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키움증권

2021년 글로벌 전기차 Best Seller



자료: MarkLines, 키움증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변화



자료 SNE Research

국가별/업체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추진 시기

국가	시기	자동차 회사 및 브랜드	시기
EU	2035	Audi	2033
Denmark	2030	BMW	2030
France	2040	Chrysler	2028
Greece	2035	Ford	2030
Netherlands	2030	Honda	2040
Norway	2025	Hyundai	2035–2040
Portugal	2040	Jaguar	2025
Spain	2040	Lexus	2030–2035
Thailand	2035	Mercedes-Benz	2030
UK	2030	Toyota	2035
미국, 중국 주	시기	Volvo	2030
California	2035		
New York state	2035		
Washington state	2030		
Hainan	2030		

자료: 각 사, 언론보도, 키움증권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1/01/01~2021/12/31)

매수	중립	매도
97.56%	2.44%	0.00%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